

우리는 숭고한 이상을 절규했다

국립의료원 간호원 최 문 정

어제 오늘 지상이나 보도를 통하여 알려져 오다 시피 우리들 국립의료원 간호원 230명은 현행 임금의 인상과 직급 개편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쿠틀 이어 10월 2에는 유순한 간호과장님의 불연한 전보발령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당국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또 다시 우리들 온실 밖으로 집단 사퇴의 파문을 크게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그 책임의 선후와 소재가 어느쪽에 있든간에 “희생과 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들 간호원으로서 비통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르 인한 침상위의 고통과 국민여론의 깊은 충고에 대하여 경건한 자세로 뒷인사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남겨둔 이번 사태가 우리들 간호원의 자숙과 향상의 계기가 되어 지금도 간호원의 처우개선에 인식한 이해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분들과 온 국민의 관심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편집실의 기고 요청은 국가공무원인 필자로서 지극히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으나,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속에서 우리들 간호원의 사명이 보람되게 하고 그 위에 또한 국민보건향상의 터전을 밝게하여 알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더욱 튼튼히 하자는데 필자의 충언이 가름되기를 바라면서 제한된 지면관계로 먼저 우리들 피부가 가까이 있었던 상대적 요인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애초 우리들이 주장한 처우개선은 그동안 기회가 주어질때마다 당국에 건의해 왔으나 빈번히 묵살되어 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신분상의 제약에서 소극적 의사 표시만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生動하는 物質文明 앞에선 우리들 간호원이 더 이상 천대와 혹사에 머물 수가 없었고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이 숨쉬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나쁘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국에 대하여 처우개선의 상세한 건의와 함께 우리는 각자가 다른 직장으로 나아갈 것을 미리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음의 회담조차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사직원을 두고 침상결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 간호원이 환자 곁을 떠나고 우리가 기속사를 뒤로하여 병원을 나올 때의 마음 아픔은 오직 백외를 입고 있는 天使들 이외에는 찢어질 듯한 조각 조각이 실감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들 간호원은 온실 밖에 버려진 초가을의 선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절규를 한데 베아티 치면서 우리들의 희생에 조국번영이 뒤따르고, 우리들 후예에게 따뜻한 유산이 남는다면, 우리들 간호원은 이 가파른 현실을 하느님이 주시는 형벌로 여기고

기꺼히 자신들의 눈시울에 이슬을 먹음기로 묵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절한 간호원의 소망과 충정에는 온 국민이 넓게 관심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여론은 뜨거운 충고와 이해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주었습니다.

설합속에 묻혔던 낮은 문서들이 급하게 손질되고 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우리들 간호원은 오직 국립의료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높으신 덕담과 인품을 심어놓고 가신 홍종관 보사부 차관님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실득에 머리숙여 실망적(처우개선의 뒷소식을 외면한채)우리는 이번사태를 도약에의 교훈으로 삼고 당국은 어떠한 형태에서도 보복적 조치가없을 것을 확약받은 다음 우리는 본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일손을 가누기도 전에 우리들 간호원은 또다시 불안과 절망의 충격속에서 까운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일찌기 개화기의 팔로 전 이극으로 건너가서 인류의 “희생과 봉사”앞에 一生을 헌신하였고, 오늘날 온 세계로부터 거룩한 Nighthingale 기장을 수여 받아 낙후된 이나라 간호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우면서 文明과 습성이 다른 SCANDINAVIA사람들과 보조를 함께 하기에 미숙했던 우리 간호원의 고충을 일일이 나라의 체면과 우리들의 긍지로 가꾸면서, 오늘날 쉬지않고 격동하는 文明에 품담아 Medical Center의 간호원으로서 국내외에 손색없이 키워주신 유순한 간호과장님이 [국립보건연구원 훈련부 간호보건담당관 직무배리]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이어서 당국은 업무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오래전의 구현이라 발표했으나 국민과 여론은 한결같이 잠잠한 상처에 파문을 던진 처사라 나무랐고, 보복인상이 짙은 조치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간호원은 보처럼 베풀어진 당국의 대응단을 그릇되게 진언한 병원당국의 처사를 주시한 끝에 이는 곧 우리들에 대한 급한 예보이며 간호원에 대한 모독과 위협으로 단정했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국제회의 참석중이었음) 또 여기에서 애초 처우개선의 波長이, 만사람앞에 평등한 우리들 봉사정신의 탈선을 바탕하는 소위 특진비의 비위를 건드렸다 하여 우리들 간호원의 수난을 틈타서 간호원 무용론을 공언하고 “유순한 部隊”나 “유순한 지지파를 뿌리 뽑겠다”는 비인격적 폭언으로 신선한 병원 내에 파벌의식을 고조시킨 일부 진료과장의 저변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이야말로 조국근대화를 위태롭게 하는 증대사라 단정하여 “간호부”로 불리우던 구시대적 악습의 고질적 저해를 탈피하고 참된 국민과 정부에 양심을 헌신하는 Nighthingale이 되자고 병원을 나왔으며 우리들 후예에게 슬기로운 긍지와 지혜를 담아주는 지성인이 되자고 까운을 벗었습니다.

오늘 우리 간호원은 얼숙한 이 현실 앞에서 결코 우리들의 극한적 행위를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치루고야 말 악습과 그릇된 풍조와 또 그 不條理를 바로 잡는 우리들의 슬픈 과제를 10년 앞당겨서 다시는 치욕과 천대를 되찾지 말자는 우리들의 절규에 ‘어쩔수 없었던 不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처우개선은 부유한 선진국의 물질문명과 정비례 하려는 허영과 사치도 아니었으며, 우리는 일개인의 인사조치에 반발하는 물지작한 편견도 아닙니다. (23페이지에 계속)